

조계종 신도등록 '답보상태'

3년에 13만명 '예산낭비'... 폐지론도 신도조직화-신행확산 위해 동참해야

늘지 않을 것이 뻔하니 더 이상 인력과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는 것이 폐기론의 이유이다. 종단 내에서도 신도등록 사업이 실패작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앙총무기관에 재직중인 한 스님은 지난 4월 어느 교구 본말사주지 간담회에서 "개혁의 때 젊은 스님들이 검증없이 신도등록 조항을 만들어왔다"는 말도 했다.

종단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신도의 조직화와 정기적인 신행의 확산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신도등록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장발급에 나서기로 하고 전법도량 현판식 현장에 나가 신도증을 즉석발급해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의존할 수도 없다. 포교원의 한 스님은 신도등록율이 저조한 원인을 "주지스님들의 철저한 무관심과 여기에 적극적으로 맞지 못한 총무원의 태도"라고 분석하고 총무원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의 한 사찰 주지스님은 "종단의 사업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중의 여러 일들 가운데 신도등록은 우선 순위에서 밀

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해 일선 사찰에서의 무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포교부장 성수스님은 "이 사업의 폐기를 선언하든지, 전법의 해 3차년도인 내년을 '재적사찰 갖기 및 신도등록의 해'로 정해 종단적 차원으로 신도등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신도교육의 해'의 연장으로서 교육된 신도의 신도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단의 방침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구본사가 책임지고 신도등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중앙총무기관의 행정력이 말사까지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니, 교구단위별 추진이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3년째에 이른 조계종 신도등록에 13만명에 그치고 있어 이 사업을 폐지하든지, 종력을 집중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은 봉은사에서 열린 신도증 즉석발급 장면.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 6월 1일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를 시작으로 시도 광역권에 걸쳐 모두 5차례 실시한 98년 본말사 주지연수회가 2일 충청지역 본말사 주지연수회를 마지막으로 성료됐다. 이번 연수회를 총지휘한 교육원장 압도스님을 충청지역 본말사 연수가 실시된 천안 주재은행연수원에서 만났다.



-95년 교육원 개원 이후 4번째를 맞은 이번 연수회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본말사 주지연수회는 21세기를 선도할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속에서,

"바른 승가상 구현 정보교류"

수요 인터뷰 조계종 본말사주지 연수 마친 교육원장 압도스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바른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중속에서 살아숨쉬는 불교가 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연수회의 목적이자 의의라 하셨습니다.

-이번 연수회 과정과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본사 단위에서 주지연수회를 실시해왔는데 비해 이번 연수회는 광역단위별로 총 5개 지역권으로 나눠 실시해 좋은 강의와 강사진을 선별해 효과적으로 연수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또 각 본사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출석률도 높고,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져 명실상부한 교류의 장을 펼쳤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는데요.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IMF체제 이후 스님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IMF체제와 한국경제 운영방향이라는 경제분야 강의의 경우, 어려운 경제용어와 최근의 경제현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다변화사회에 대응하는 스님들의 적극적인 포교자세의 변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 도주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강의, 평화통일을 향한 화해·협력과 불교 등

의 강의도 21세기를 대비하는 뜻깊은 강의였다고 봅니다.

-이번 연수회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1박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인해 각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부터는 한 주제를 정해 놓고, 전문가를 초빙해 '테마연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연수회에 참가한 스님들은 한결같이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 종단 연수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원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 안주하는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 대중사회에서 불교의 역할과 책임을 공감하고 실천하는 소임자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연수와 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현재 시행중인 사미니(의제)와 제15기 행자교육원 등 앞으로 남은 사업들을 잘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 종도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은자 기자 (ejelee@buddhania.com)

한국 조사선 전통 재확립

백양사에서 여는 국제 무차선회 유래와 의의 정신-물질적 공황 반성 통해 미래 설계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8월18~22일 개최되는 '국제 무차선회(無遮禪會)'는 1921년 방한암 스님이 건봉사에서 무차선회를 가진 이후 77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으로, IMF 관리체제 등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파탄과 물질적·정신적 공황(恐慌)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불교 특유의 선(禪)을 통해 충구를 찾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백양사 무차선회의 주제는 '한국의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이다. 이번 무차선회는 전 조계종 중흥을 지낸 서용스님이 평소 정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조사선이고 오늘날과 같은 혼란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참사람운동을 주창해 온 것과, 백양사가 실직자들을 위한 선수행교실의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행사이다. 첫 행사인 8월18일 우리나라 선종의 큰산맥인 서용, 해안, 진제스님이 한자리에 서 살법하는 고승대법회는 전국 선원수좌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로 근대 보기 드문 법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5명의 국내외 불교석학들이 참여

하는 '선' 주제 학술회의는 조사선전통과 불성, 불교적 깨우침 등에 대해 조명하고 첨단과학시대에 있어 선불교의 현대적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되어 티벳이나 일본산불교가 크게 알려져 있는 세계불교계에 한국 선불교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불교의 전통이 중국과 일본 한국에 남아 있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영향으로 선불교의 전통이 사라졌고, 일본은 지나치게 형식주의로 흐른 가운데,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한국의 선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불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 한국선의 전통을 바로 이어가자는 취지이다.

'무차회'는 범어 'Panca-parisad' 또는 'Panca-varisika-parisad'라 하며 승려·속인·남녀노소·귀천의 차별없이 일반대중들이 평등하게 법문을 듣고, 잔치를 열어 물건을 베푸는 일종의 법회의식이다.

원래는 인도에서 널리 행해졌는데, 아소카왕(재위 BC. 268~232)과 같은 유력한 국왕들이 선지식들을 모시고 차별없

"여보, 당신은 노동을 하거나 밥을 자시지 않으면 일을 못하실 겁니다. 저는 여자라 집에 한가히 있으니 재물을 가져다 드리세요." 그러자 그 아들이 나섰다. "아버지 어머니는 늙으셨으니 잡수셔야 합니다. 재물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번엔 며느리가 말했다. "시부모님과 제 남편이 각기 손님에게 밥을 주시겠나 하지만, 저야말로 나이 어리고 기운이 많아 한끼 정도 굶어도 괜찮습니다. 재물을 손님에게 드리세요."

가장인 과수원지기가 말했다. "우리 식구 모두 착한 마음을 내어 보시려하니 각각의 몫을 다같이 조금씩 덜면 손님을 대접하기에 족할 것이다."

과수원지기네 식구들은 각기 재물의 밥을 줄여서 스님께 공양 올렸다. <제공재환경·除惡災患經>에 있는 이야기다.

심사일반이란 말처럼 열사람이 한술씩 보태면 남을 쉽게 도울 수 있다. 곳곳에서 IMF 실직자를 돕고 있는 요즘 어디든 가깝게 손닿는 곳에 심사일반의 자비를 보태자. 과수원지기네 식구들처럼.

목어 심사일반

옛날에 한 스님이 밥을 얻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다. 마을에 당도하기 전에 사나운 비바람을 만났다. 마침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과수원이 있어 스님은 그곳에 가서 비를 피했다. 과수원지기는 나무를 가져다 불을 피워 스님의 젖은 옷을 말렸다. 비가 뜰해 지면서 스님의 옷이 다 마르고 몸도 따뜻해졌다. 스님이 옷을 입고 나가려하자 과수원지기가 물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출가한 몸이라 밥을 빌어 목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난한 재집의 음식은 보잘것없으나 편찮으시다면 여가게십시오." "수행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구하는데 밭갈과 맛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배를 채우면 되니 허락하신다면 더뵈겠습니다." 과수원지기는 밥을 가져오기 위해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밥이 다 됐소?" "예, 다 됐어요." "소중한 손님이 과수원에 오셔서 대접을 해야하니 내 밥을 가져오세요."

이은자 기자 (ejelee@buddhania.com)

강남신관, 성남 김스클럽, 일산 뉴코아, 수원 인계점, 평촌점, 평택점 동시 OPEN!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뉴코아 백화점 6개점 동시 실시

불교TV 호상 기획전

뉴코아 서울·경기지역

bfn 불교텔레비전이 불자님들께 '명품삼배' 보급을 위해 뉴코아백화점에 효도상품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윤달의 효도를 위한 극락왕생복은 물론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해 드릴 생활용품과 마음의 양식까지 구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삼배숙수건과 삼배양말

●불교용품

●다기류

●서적 및 팬시용품

●극락왕생복

●우리옷

●사찰전통음식

bf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bfn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 (02)3270-3366

팩스: (02)3270-3498

●강남신관(지하층): 02)530-5647

●성남 김스클럽(1층): 0342)780-3226

●일산 뉴코아(6층): 0344)900-5602

●수원 인계점(7층): 0331)30-5705

●평촌점(10층): 0343)80-5703

●평택점(9층): 0333)50-6647